

토정비결

1984년 4월 7일 | 양력 | 남성

토정수

1510

연운 (한 해의 운세)

올해는 마치 봄날 얼음이 녹듯 그동안의 어려움이 서서히 풀리는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나, 하반기로 갈수록 귀인의 도움과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뜻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덕을 쌓으면 복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니 밝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십시오. --- ##

1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좋은 달입니다. 다소 바쁘고 분주할 수 있으나 이는 좋은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윗사람이나 연장자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따를다면 올 한 해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

2월

차분히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십시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것이 다른 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3월

봄기운과 함께 운세도 점차 상승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이 중에서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

4월

재물운이 서서히 트이는 시기입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하게 관리하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활력이 넘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

5월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달입니다. 평소 실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자신 있게 도전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니 겸손하고 화목한 태도를 유지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

6월

여름의 시작과 함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에 힘쓰십시오. 대인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

7월

한 해의 중심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이 쌓이고 있으니 꾸준히 정진하면 곧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면 좋습니다. ##

8월

재물과 관련하여 좋은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한 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십시오. 귀인의 소개나 추천으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주변 분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월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결실을 거두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노력한 일들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십시오. 특히 직장에서의 평가나 승진 등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10월

운세가 가장 왕성한 달 중 하나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나 미루어 두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좋은 시기이니 용기를 내어 도전하십시오. 귀인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11월

재물운과 사업운이 함께 상승하는 좋은 달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추가 소득의 기회가 올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십시오. 다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안정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올 한 해 도움을 받은 분들께 인사를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면 내년의 복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면 더욱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
당부의 말씀: 올 한 해는 인내와 성실함이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작은 선행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시고 항상 밝은 미소를 잊지 마십시오.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